

내년 지역 현안사업 3각 공조로 '파란불'

광주시·전남도·더민주 정책협의회...국비확보 힘 모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도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인 20대 국회에서 제1당인 더민주 등 야권과의 든든한 공조가 이뤄질 경우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현안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2일 오전과 오후에 시청 회의실과 무안공항 회의실에서 각각 더민주와 '2016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더민주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더민주 이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총음지방정부위원장, 김현미 예산결산위원장,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기호 국회의원, 박해자 광주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더민주 소속 구정장, 시·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광주시는 현안사업으로 ▲광주 공공항 이전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2단계) 조성 ▲에너지밸리조성 특별법 제정 ▲시내면세점 유치 ▲5·18 애곡 및 평화방지를 위한 5·18 특별법 개정 등 8건을 건의했다. 국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등 모두 20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윤장현 시장은 현안사업 건의에 앞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보고 하고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계획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내년도 국비 지원 15건, 영산강 유지·관리 선박 건조 등 올해 추경 예산 지원 5건, 정책지원 5건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연륙·연도교 건설 등 SOC 사업 확충, 소형

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필수 시설인 플로팅도크 설계비 확보 등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전남도가 이날 무안공항을 협의회 장소로 선택한 것은 무안공항 활성화와 KTX 무안공항 경유 등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지사는 "긴급한 현안인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회의 장소를 무안공항으로 선택했다"며 "무안공항을 활성화 하려면 활주로 연장과 KTX 무안공항 경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총음 지방정부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무안공항 활성화와 KTX 무안공항 경유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국회에서 논의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 특별법 개정' 더민주 당론 제1호 법안 추진

이상호 원내대표 밝혀
'비방·왜곡' 처벌 조항 신설
'임 행진곡' 공식기념곡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비방·왜곡에 대해 처벌 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더민주 이상호 원내대표는 2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1호 당론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표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저희 당의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면서 "8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당론화 작업에 들어가갈 예정인 가운데 다음주 정식 의원총회를 열어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삼임위원회별로 최우선 법안 등을 내놓은 뒤 이를 의원 총회에서 활발하게 토의한 뒤 당론 법안으로 정하게 된다"면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시가 이날 제시한 8대 현안 중 하나로,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지정과 5·18 역사 왜곡 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추진돼 오고 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5·18 기념식을 5·18 민주유공자 등과 협의해 개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광주공동체 메시지 발표를 비롯해 3차례의 의원 발의, 국민토론회 등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6월1일 당 소속 국회의원 38명 전원의 이름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과 5·18 기념식 제창, 5·18 비방·왜곡 및 사실 날조 행위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더민주 이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총음지방정부위원장, 김현미 예산결산위원장,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기호 국회의원, 박해자 광주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더민주 소속 구정장, 시·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더민주 이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총음지방정부위원장, 김현미 예산결산위원장,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기호 국회의원, 박해자 광주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더민주 소속 구정장, 시·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더민주 이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총음지방정부위원장, 김현미 예산결산위원장,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기호 국회의원, 박해자 광주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더민주 소속 구정장, 시·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독서서점' 재현 '2016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30여일 앞둔 2일 오후 광주비엔날레 전시실에서 스페인 작가 도라 가르시아의 '독서서점-산 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 작품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작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주요거점이었다던 1980년대 독서서점을 재현한 것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D-30 작품 속속 설치·참여작가들 광주로

2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 '책방'이 들어섰다. 스페인 작가 도라 가르시아의 작품 '독서서점-산 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이다. 광주시 동구 장동에 문을 연 독서서점은 '1980년 광주'의 상징적 공간이다. 5월 항쟁 소식을 알린 유인물을 배포하는 주요 거점이었고, 시국

토론을 하던 사랑방이었다. 1980년 6월 취를 감춘 지 36년만인 2016년, 다시 등장한 독서서점은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 <관련기사 16면>

2016광주비엔날레(9월2일~11월 16일)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첫 작품 설치가 시작됐고, 작품 제작을 위해 참여작가들도 속속 광주

를 찾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가 주최하는 올해 행사는 '제 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주제로 국내외 37개국, 101개 작가·팀(120명)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광주와 밀착된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들이 많은 게 특징이다. 토미 스톡켈은 지난달부터 광주를 대표하는 이미지인 바위와 돌맹이 형상을 재해석한 입체·설치 작품을 제작중이며 에니 라이 군 원은 지식도요 손동진 청자명인과 작품을 만들고 있다. 또 아제르바이젠 출신 바비 바탈로프는 오는 15일부터 광주에 거주하며 난민 생활 경험을 작품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홍보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부터 9월1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비엔날레 홍보관을 운영하며 CGV 등 멀티플렉스와 아찔피언스필드에서 홍보대사 현빈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다. 입장권 판매도 순조롭다. 현재 목표치 8만매의 55%인 4만 4000장이 판매됐으며 티켓링크와 함께 네이버 예매 서비스도 처음 시작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반갑다 ☂ 소나기"

광주·전남 오늘 5~50mm...일부 지역 강한 비 예보

불볕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에 다소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려 잠시나마 무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일 광주·전남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5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새벽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깔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산악과 계곡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차례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3일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도 25도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홍 피부를 선사합니다

H E R A

*유행병역이나 아노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 080-023-5454(수신료유무) www.hera.co.kr